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인간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 없는 삶이란 없다. 병이 생겨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배신이나 소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있으며, 죄악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져 힘들어하는 영적 고통도 있다. 이렇게 고통은 힘들다. 특히 원하지 않는 고통은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데도 닥치는 고통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고통은 자의적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고통을 찾아 감수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희생’이라 한다. 강요된 희생은 고통이지만, 닥칠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찾는 희생은 그 가치가 크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더욱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희생을 치른다. 영적인 성장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희생은 필요하다.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는 희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고 새로운 삶을 희구하는 쇄신의 생활 태도가 그런 것이다. 더 큰 가치, 더 큰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직접적인 결실과 관계없이 값진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려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몸소 실천한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이미 실현된 것이나 진배없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점을 배운다. 사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줄 알도록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한다.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다. 주님께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진리를 따라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이다.

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해 지낸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되새긴다. 사도 바오로가 전해주는 독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점을 깊이 깨우쳐준다. 하느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과 멀어질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렇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고, 그 진리를 수호할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이며 자세이다.

우리의 순교 성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 우리가 은혜로이 받은 신앙도 결국 그분들의 희생으로 맺어진 결실이며 열매이다. 그분들은 천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기분 좋고 마음 든든한 일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더욱 값진 사랑과 진리라는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고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복음은 말한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버리라고, 그리고 희생이라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순교자 성월을 지내면서, 특히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이 더욱 값지고 가치 있도록 수준을 높여보자. 순교자들의 그 희생정신을 몸에 익히고 더 큰 사랑을 얻고 진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보자.

[경향잡지 2001년 9월호, 대구대교구 나기정 신부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타(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요한의 영혼을 위하여	세실리아 가족	생	사회복지부장 이애연의 빠른 완쾌와 경노잔치를 위해 애산 복지부원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부 일동
연	김재야 영혼을 위하여	연령회	생	김혜진 미카엘라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김동현 미카엘 김혜진 미카엘라 가정
생	안나의 건강을 위해서	익명	생	이보영보나 주지미 로사리아 영혜진 미카엘라 생일감사	소화대례사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9월22일(화)	연중 제25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2,700.00 \$ 1,135.00
9월23일(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오전 7 : 30	도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 \$ 200.00
9월24일(목)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60.00 \$ 150.00
9월25일(금)	연중 제25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성모님 촛불& 감사헌금)	\$ 56.00 \$ 319.00
9월26일(토)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오후 7: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200.00 \$ 4,920.00
9월27일(일)	연중 제26주일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2 김용욱 7~8월 정두용 권오돈 7~9월 이호영 7~12월 김미옥 8~9월 류승교 이은로 8월 안기창 원원호 9월 김선식 허형 김평욱 지복원 허용희 엄규홍 김병준 이강덕 이상일 김길록 9~10월 원승남 장석자 9~12월 박판기 박재례 국부자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39 복음 루카 9:23-26

화답송

화답송 : 시편 126(125), 1-2L, 2c-3, 4-5, 6(◎ 5)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두 개의 천당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신앙과 목숨을 맞바꾼 신앙선조들의 위대한 삶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들이 바로 오늘 기억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103위 순교 성인들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순교자 124위가 작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때 이루어진 시복미사로 복자의 품에 오르셨습니다. 그 외에도 100년이 넘게 이어온 박해시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무명(無名)의 수많은 순교자들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 모든 순교자들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선조들입니다.

그중 한 분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4위 복자에 시복된 분으로서 이름은 황일광 시몬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충청도 홍주 출신이고, 신분은 천민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백정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우연히 이촌창 루드비코 곤자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 경상도 땅으로 이주를 하여 살았습니다. 경상도 교우촌에서 교우들은 그의 천한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감싸주었고, 양반들도 다른 교우들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은 황일광 시몬은 농담조로 여러 번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며 두 개의 천당이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훗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이 사는 경기도 광주로 이주를 하였고 또다시 정약종 회장을 따라 한양으로 이주하여 땔나무를 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땔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포졸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밀고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천주교를 ‘성스러운 종교’ 라고 부르면서,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진매질과 함께 백성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고향으로 보내어졌고, 고향 홍주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철저히 차별되었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도 다른 처지에 놓여졌고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 더군다나 천민과 노비는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짊어져야 했지만, 그 대접은 양반 집안의 가축보다 더 천하게 대접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의 황일광에게 천주교는 빛이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 없는 인간관계, 사람 대접해주는 신자들, 그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천당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숨도 두렵지 않았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미 천당의 삶이었고 행복이었는데, 후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세상은 더 큰 행복임을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순교 성인들과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이 살아간 신앙은 이 세상에서 천당을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신분과 출신, 빈부의 차별을 두지 않는 인간관계, 하느님만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며 서로가 형제임을 받아들이는 삶은, 당시의 조선사회의 기득권에게는 커다란 도전이고 위협이었지만 신분제 사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백성에게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심어졌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박해와 참수로 이어지는 고통이 따랐다 해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당을 살았던 순교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당은 후세로 이어질 것이기에 더더욱 이 세상에서 천당을 그리고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 박해시대의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당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당을 맛보았으니 더 철저히 희망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돈이나 물질, 이 세상의 권력에 자신을 팔아버리지 않게 될 테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당으로 바꾸어 나가는 실천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우리가 지고 가야할 십자가는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세상을 천당으로 바꾸는 희망과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송헌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하나 될 날

나 그대와 하나 될 날

나 그대와 하나 될 날

그날 위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길어올리네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대 사도 요한 · 화가

진
제
지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본당의 날 행사 및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 일시 : 9월 27일(일) 11시 미사
- ◆ 본당의 날 행사는 민속놀이로 합니다.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고, 행사 도네이션도 부탁드립니다.
- ◆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이나 전례부장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홀수구역은 파란색계통 옷, 짝수구역 빨간색 계통의 옷 입고오세요.

4. 프란치스코 교황님 미국 사목방문

-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를 사목방문하십니다.
- ◆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기도해 주세요

5.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6. 북가주 성령기초 목상회

- ◆ 10월 16일(금) 오후4시~18일(일) 오후 3시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회비 :260불 선착순 :35명
- ◆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 신청 : 이순자요안나, 김은영폴리나

7.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9월 25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8. 성서 백주간 새로이 시작합니다

- ◆ 첫모임 : 10월 6일(화) 미사후 데레사방
- ◆ 연락 : 이지연크리스티나 (916)500-3830

9.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2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200)	\$40,295.00

10. 감사합니다!

- ◆ 본당의 날 도네이션 : 신부님(송편300\$), 이재덕(삼성48"TV) 서 메리 (\$100) 김용문 요한 (\$100)
- ◆ 이번주 점심봉사 : 구역장 보조 : 이호순 수산나
- ◆ 다음주 점심봉사 : 본당의 날
- ◆ 박상민 그레고리오 형제님 (\$1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익명(\$200)	\$63,43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4,010	266,048

지구 & 교구소식

회합 : 20일(일) 미사 후 성당

-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 북가주 제20차 전체울드레야 모임
- ◆ 장소:새크라멘토 정혜엘리자벳 성당
- ◆ 일시: 10월 10일(토) 오전 9시~오후4시
- ◆ 신청 : 김동현 미카엘 많은 꾸리실리스타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

- 사목회 : 9월 20일(일) 11시 미사 후 엘리사벳 방
- 대건 안드레아회 :9월 27(일) 미사후 마테오 방
- 정혜 글방-10월 3일(토) 저녁 6시 엘리사벳방
- 본당 골프대회:10월11일 (일) 오후 1시 30분
- ◆ 장소 : Morgan Creek (shot gun) : 이번 골프대회는 연도책과 성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 정혜엘리사벳 도서관 휴관 :27일(일) 본당의 날 행사 관계로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임꺽정 1권 가져가신 분은 정혜도서관으로 가져오세요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개학 - 9월 20일(주일) 9시 미사
- ◆ 문의:김미경 아네스(530)906-0265 /오민정크리스티나(213)700-0051

전례 봉사	09월 20일	0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해 설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1 독 서	이상인 (시메온)	이주순 (율리오)	김민규(다미아노)	김채홍(어거스틴)
2 독 서	유정임 (가브리엘)	김화선 (아네스)	송봉금(다미아나)	김준희(키아라)
복 사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 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기도/청소	3PC~4NH	3PC~4NH	5GF~6RC	5GF~6RC
헌금 위원	송돈희 임상일	장석자 고원석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해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p> <p>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p> <p>☎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p> <p>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p> <p>☎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p> <p>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p> <p>이호영(호영베드로)</p> <p>☎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p> <p>☎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p> <p>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p> <p>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p> <p>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p> <p>길성진</p> <p>☎(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p> <p>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p> <p>☎(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p> <p>☎ (916) 363-2345</p>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p> <p>☎ (916) 353-1112</p> <p>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p> <p>☎ (916) 361-2020</p> <p>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p> <p>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p> <p>☎ (510) 451-7487</p> <p>688-0157</p>	<p>한국위성방송</p> <p>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p> <p>☎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p> <p>☎ (916) 362-3300</p> <p>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p> <p>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p> <p>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p> <p>☎(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p> <p>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p> <p>☎ (916) 548-3278</p> <p>(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p> <p>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p> <p>김 지나</p> <p>☎ (916) 362-0260</p>
<p>· 용자</p> <p>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p> <p>☎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 Citrus Heights, CA 95621</p> <p>장원석(바오로)</p> <p>☎ (916) 729-1441</p> <p>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p> <p>파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p> <p>☎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p> <p>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p> <p>☎ (916) 860-3873</p>

--	--	--	--